

# 나 하나를 버린다면 전체가 다 버려지는 겁니다

29면에서 계속

라. 말과 뜻과 행,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진실함을 알게 되면은 그냥 따르라고 그랬지,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따르라 이겁니다. 왜 따르라고 그랬느냐. 그럼, 당신네들 주인공 안에 나와 더불어 같이 모두 일체 만물만 생이 다 같이 한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람이 이런 예가 있죠. 예전에 3대 위로 할아버지께서 아주 진실하게 청정하게 공양을 잘 바치고, 타력 신앙으로 한 게 아니라 자력 신앙으로써 진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2대의 손자를 왕으로다가 되게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왕으로다가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3대 뒤 할아버지가 이 3대 아래 손자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손자로 태어나서 참, 왕도 됐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이 흔들리면 남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또 욕심이 많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충신의 말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한 것대로 '고당어리'에서 그때는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욕심으로 가득 찬 거죠. 욕심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두 번, 서너 번 해먹으려면 이런 이렇게 없어야겠다.' 해서 그만 모의를 해 가지고 왕을 죽였단 말입니다. 어디 그런 소리가 썰개 봐 단 둘이서만 해 가지고 반 방향으로 모든 일처리를 해 가지고선 딱 죽었는데, 그게 죽으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썩죽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 요놈! 내 자식과 내 가정을 파괴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서도 내가 잘 살 수 있겠느냐?' 해서 항상 그 마음이 그 집 울 안에 항상 맴돌고 있던 말입니다. 그 악의, 그러니까 그 왕은 죽지 않고도 죽었던 말입니다. 그러니 죽은 거보다 죽지 않고 죽은 것이 더 괴로움을, 그냥 시들어서 가면서 길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백 년 역사에도 그러한 일들이 허다했죠...

역시 지금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그 도리도 바로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쓰면 스스로 우주간 법계에서 돌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생각을 그렇게, 병에 대해서도, 가난에 대해서도, 우환에 대해서도, 괴로움에 대해서도, 허무함에 대해서도 그것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 있는 고당어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나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모든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 거기에다 놓고,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인도하는 내 주인공이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을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오장 육부 이 모든 세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바로 진화가 돼 가지고서는 오히려 보살로 화해 가지고 수호신이 돼 가지고 나를 보살피고, 보신이 돼 가지고 보살피고, 보현보살이 돼 가지고 보살피고, 약사보살이 돼 가지고 보살피고 아, 이러니 내 몸은 어느 새 낫는지 모르게 낫고, 어느 새 눈이 밝아지고, 어느 새 '야, 이거 이런 줄 모르게 됐어.' 이렇게 하게끔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스스로 자비의 칼로써 즉, 자루 없는 칼이 우주 법계를 꿰뚫어서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넘나다니면서 그 나와 같이 괴롭고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서로가 내가 돼 줄 수 있는, 전부 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이나 수소폭탄, 모두 이런 잠수함을 부수는 그런 그 기계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그 생명체가 좀 더 부실하고, 자기가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좀 더 약해질 수가 있고 마음대로 그 살 수가 없지 않을까, 앞으로는 점점 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공부를 하고 진리를 타파하고 어떤 석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자기 마음의 그 의식 자체를 넣는다면 두드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만 개의 영령을, 영혼을 가지고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수없이 빼내도 줄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한 진리를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 몸뚱이를 움푹 못하게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에 내가 해서 입력이 된 거니까 그 입력된 데다 다시 맡겨 놓고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해, 내가 할 수밖에 없어.' 하고 주인공에게 모든 걸 맡겨 놓을 때에 비로소 그 인과는 무너지고 업보도 무너지고 또 유전성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삼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두고두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러면 누구를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대신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신 아파 주기를 합니까 먹여 주기를 합니까? 똥을 뉘 줍니까? 자 쏘니까? 죽여 줍니까? 누가 해 줍니까? 아무런 친절하지 않아 천에 없어도 대신 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왔고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와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은 자기 몸 뭇 어저기 전에 자기를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만남도 고정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한 것도 공했으니라 이런 거거든요. 분별 없다면 공한 것도 공했으니라. 그 공한 것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공했다는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공한 것도 체험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어려운 말을 해서 이렇게 경서를 놓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듯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시험하면서 내 주처에 맡겨 놓고 지켜본다.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기도 하고 실험입니다. 그게.

그리고 체험을 한다면 자기가 당당해지고 능통해지고 지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인간의 그 자유스런 행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 얼마나 슬기롭고 자유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도리를 배우는 데 내가 그 절이 나가 못하고, 저 교나간 가고, 이 교기 때문에 불교에 못 오고 이런 법이 어딴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가라, 가라 이러지 말고, 또 나는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내 마음 주처, 즉 하나 남도 따네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의 임을 발견을 해야만 모든 입들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집에 전화를 놓지 않고 남의 집의 전화를 어떻게 소식을 듣습니까? 내 집에 안테나를 세워 놓지 않고 어떻게 남한테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감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내 몸뚱이 하나와 더불어 같이 그냥 승두리째 죽고 산다 뭐, 괴롭다 괴롭지 않다를 다 당신 주인공에다 일임해 버리면 죽고 사는 것도 아랑곳 없어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인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좀 허허 웃고 사세요.

**불자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하는데...**

**문)**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하여 대형 스님 법문을 보면서 나름대로 공부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불자들이 투철한 자기 주관이 없으면 거의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교인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 우리가 개종을 하고 개종을 안 하고 그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불교는 어느 한군데 국한된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점의 상표처럼 생각하고 이전 내 가게 네 가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지구를 우리 집이라고 한다면 크나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는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그 마음의 능력과 더불어 세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또는 지구를 집이라고 한다면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널리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과학이 발전되고 있지만 이렇게 기계화로, 물질화로 치달아서 파손시킬

한 소인의 그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요? 지각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소견으로 살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소견으로 살면은 지각을 이룰 수 없고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돌로 보고 내가 망하게 해 줬니, 내가 잘했으니 하고 내 몸뚱이를 나라고 해서선 절대 그것은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지금 차를 가지고 운전수터러 가라고 그래야 그 차를 끌고 가는 거지, 만약에 차터러 "야 자가용야, 빨리 가." 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자가용은 가지 않습니다. 운전수터러 가라고 그러려면 차를 끌고 갑니다. 그런 것같이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처는 전 우주와 가설이 돼서 통신이 돼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미래에,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지마는 과거도 우리가 짊어지고, 지금 달구지에도 잔뜩 짊어지고 현실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달구지에 짊어지고 나온 그 인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딜 처야겠습니까. 그 물건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소를 믿고, 이 소가 한 것이니까, 이 달구지에 잔뜩 실은 게 자기가 전에, 내가 나오기 이전

그러면 이게 내가 불성이 '부' 라면 지금 현상계에 있는 자기는 바로 '자' 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거를 놓고 볼 때에 잠재의식은 현재의식 속에 들어 있고 현재의식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도 이 머리, 이 팔도 반쪽로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뚫려서 왔다 갔다 하지요. 그것이 바로 통신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거 미출 얽히듯 말입니다. 이 세포가 바로 법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혹성이 지구에도 세포가 있고 인간에게도 세포가 있고 어느 물질에 게도 세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는 가설이 돼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안다면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으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선원에만 외라, 이거 아닙니다. 어디든지 내가 배울 데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배워라 이겁니다. 그리고 꼭 부탁할 건 한 가지 있죠. 어디를 가든지 내 주처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몸뚱이는 어디를 못 갑니까.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관을 했는데 명쾌한 답이 안 나와요**

**문)** 주인공에 맡기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해 관을 했지만 명쾌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요.

**답)** 뭘 들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통신이 되질 않죠. 나 하나만 버린다면 전체가 다 버려지는 겁니다. 나 하나만 버린다면, 그럼 일상생활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 나가는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나는 내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해 나가는데 나는 그저 해 나가는 대로 심부름만 하면 그뿐이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 나가는 데는 해당도 안되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내 몸뚱이 하나와 더불어 같이 그냥 승두리째 죽고 산다. 뭐 괴롭다 괴롭지 않다를 다, 몸뚱이 하나를 다 당신 주인공에다 일임해 버리면 죽는 거 사는 것도 아랑곳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주 '왔다' 예요. 허허허. 그럼 모든 게 해결 나는 판국인데도 뭘, 걱정할 게 뭐 있었어요? 그리고 천 년 만 년을 사나오,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좀 허허 웃고 살면 어때요?

##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서는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이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 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사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예술원

(공방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아 상담 합니다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의)
- 장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난 평안을 위한 기도
  4. 불마 귀유를 위한 기도
  5. 영산음악
  6. 행복환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명의 기도
  9. 장영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반심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 때는
  14. 여름 별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버려라
  19. 우리 곁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문을 닫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전연 1
  22. 광명전연 2
  23. 개경계
  24. 지경공덕분
  25. 예법문
  26. 안산 해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계
  30. 법성계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경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찰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갈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명분